

창립 10주년 JB금융그룹 ‘강소금융그룹’ 도약

은행·캐피탈로 출발 10년만에 9개 계열사 종합금융그룹 성장
2013년 출범 이후 자산 3.7배 늘고 당기순이익 22.2배 증가

JB금융그룹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JB금융그룹은 지난 2013년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로 출범, 10년 만에 총 자산 60조원 달성하고 당기순이익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JB금융그룹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소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JB금융그룹은 최근 무주 태권도원에서 ‘10년의 동행,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최원철 JB자산운용 대표, 이구옥 JB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3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JB금융그룹의 10년간 발자취를 돌아보고 작지만 굵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진행됐다. 행사는 10주년 비전 영상 시청,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축사, 그룹 봉사단 창단식, 축하공연, 임직원 합창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3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 왔다. 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한 JB금융그룹은 현재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행사장에는 JB금융그룹의 1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으로 디자인된 포토존이 설치돼, JB금융그룹의 10년 역사를 기념했다.

JB금융그룹은 2013년 7월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와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당지를 키웠다.

이후 글로벌 사업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2016년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를 시작으로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JB캐피탈 미얀마’를 설립했다.

2019년말에는 JB증권 베트남(JBSV)이 출범했고 2021년에는 캄보디아에 자산운용사 ‘JB PPAM’을 신설하는 등 지방 금융그룹임에도 발 빠르게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그룹 당치가 단기간에 커졌지만 수익성 면에서도 내실이 있는 성과를 올렸다.



JB금융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 임직원들이 자축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그룹 총 자산은 출범 첫째 16조1861억원에서 올 1분기 60조를 돌파하면서 3.7배 몸짓을 부풀렸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면에서도 지난해 6010억원을 기록, 출범 첫째(271억원)보다 22.2배 높은 성과를 냈다.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2019년 말 최초로 금융감독원 권고 수준인 9.5%를 넘어선 이래 매년 성장을 거듭해 올해 3월 기준 12.32%를 달성했다. 수익성 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주요 경영 지

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13.88%, 총자산이익률(ROA)은 1.05%로 출범 초기 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도 2018년 52.3%에서 지난해 37.9%로 역대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

충주주환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지난해 27%로 2018년 14.5%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기홍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과 디지털 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투명 경영과 상호존중 기업문화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연탄 가격 58% 하락했는데 시멘트값 왜 올리나”

지역 건설·레미콘업계, 대형사에 인상 철회 촉구 “전기료 때문이란 것은 어불성설”

시멘트 가격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레미콘업계가 일부 대형회사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두), 전남남부·동부레미콘사업조합은 28일 오전 “시멘트 업계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이들 단체는 “일부 대형 시멘트회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 시멘트 공급물량의 35%를 차지하는 쌍용C&E와 성신양화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4%가량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0% 인상한 것에 이어 추가 인상으로, 시멘트 업체들은 정부의 인상 자체요청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목소리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시멘트 주 소비자인 지역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상생을 위한 모임을 정례화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 소금 가격 안정제·판매처 제한 도입을”

신안 천일염 생산자 단체 제안…“햇소금 충분, 천천히 구입” 당부

신안지역 천일염 생산자 단체가 정부에 가격 안정제와 판매처 제한을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28일 “최근 급등하는 천일염 가격으로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 안정제’와 ‘판매처 제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높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고가를 책정하고 생산원가를 보전해주는 가격 안정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 생산자가 가격 하락 우려가 없어,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은

사태에 가격을 높이는 생산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판매처 제한을 통해 소금이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단체는 “마등록·미신고되어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없고, 수입산 포대갈이의 우려가 있는 불량업체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햇소금은 출하가 되지 않았고 산지에서 천일염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며 “비싼 가격에 사지 말고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수출페스티벌 28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2회 광주·전남 기업 수출페스티벌’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협약을 체결한 광주·전남 지역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5개국 해외비즈(Biz)센터 20여 명의 센터장과 바이어, 지역 수출희망기업 70개사 등이 참석, 첫날 광주·전남 기업 8개사가 9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기 수출 석 달째 줄어…감소폭은 둔화

중고차·반도체 등 5월 95억5천만달러…전년 동월비 5.2% 감소

지난 5월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구)이 발표한 ‘중소기업 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95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5.2% 줄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지속했다. 다만 감소 폭은 3월 9.1%, 4월 6.0%에 이어 지난해 5.2%로 둔화했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중고차) 수출은 140.8%로 크게 늘었으나, 반도체 관련(-17.3%)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21.3%), 합성수지(-22.8%)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11.5%)과 미국(-6.5%), 홍콩(-4.0%), 중국(-3.4%), 일본(-2.7%) 등 주요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9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만7000명 늘었다.

규모별로는 종사자 1~4인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16만2000명 늘었고, 5~299인 사업체는 7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1일)와 반도체 관련 제품 등 주력 제품 수출 감소로 인해 지난해 동월보다 2.5% 줄었다.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1.2% 늘었다.

지난 4월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9602개(-8.6%) 감소한 10만1452개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활동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둔화로 그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소상공인·중기 지원 출연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지난 27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전남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11억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출연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재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남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여신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남본부는 이번 출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62억2800만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전남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며, 지역의 선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라면 4개사 모두 가격 인하

국내 주요 라면 4개사가 모두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농심과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을 내린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에는 오뚜기와 팔도가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오뚜기는 7월 1일부터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스낵면(5개입) 가격은 3380원에서 3180원으로 5.9% 낮아진다. 참깨라면(4개입)은 4680원에서 4480원으로 4.3% 인하되고, 진짬뽕(4개입)은 6480원에서 6180원으로 4.6% 저렴해진다.

다만 진라면 가격은 유지된다.

오뚜기는 지난 2010년 진라면 가격을 인하한 뒤

원부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에도 지난 2021년 8월까지 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팔도도 일품해물라면,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 등 11개 라면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평균 5.1% 인하한다. 변경된 가격은 7월 1일부터 채널별로 순차 적용한다. 다만 팔도비빔면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4.19(-17.20)
↓ 코스닥	866.97(-7.17)
↑ 금리(국고채 3년)	3.557(+0.019)
↑ 환율(USD)	1307.30(+7.00)